

건설동향브리핑

제485호 (2014. 11. 10)

■ 경제 동향

· 10월 CBSI, 전월 대비 9.0p 하락한 74.9

■ 특집/201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 2015년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0조원 전망
· 2015년 주택 매매 가격, 수도권 2%·지방 1% 상승 전망

■ 정보 마당

· 2015년 경영 전략 수립의 쟁점과 대응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실효성 있는 근절책이 필요한 입찰 담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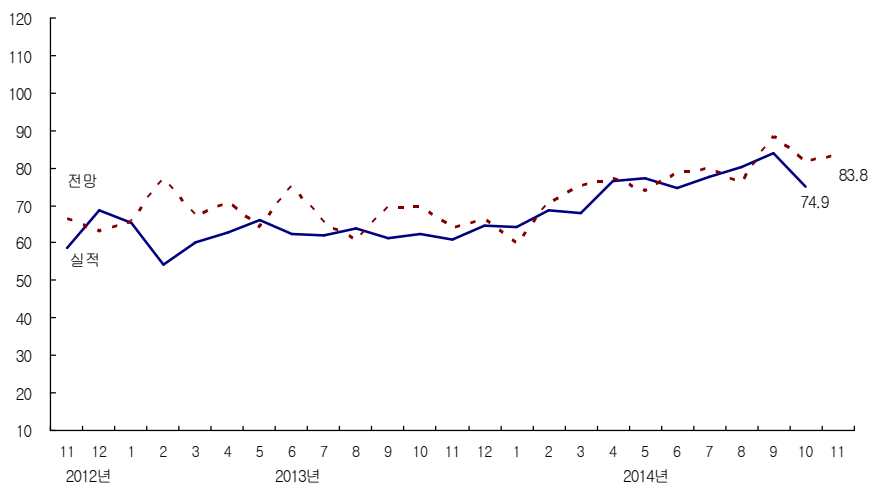
10월 CBSI, 전월 대비 9.0p 하락한 74.9

-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 20개월 만에 최대 낙폭 기록 -

■ 제2기 경제팀 경기 부양책, 4개월 만에 효과 종료

- 201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 대비 9.0p 하락한 74.9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4년 11개월 만의 최고치인 83.9를 기록했음.
 - 그러나, 10월 들어 다시 전월 대비 9.0p 하락함으로써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작하기 직전인 6월의 74.5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하락폭도 커서 9.0p의 하락폭은 지난 2013년 2월의 11.1p 하락 이후 최대의 낙폭임.
 - 지수 하락의 원인은 지난 3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통계적 반락의 효과가 작용했고, 재정의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의 부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지난 3개월 간 CBSI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제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및 9.1 부동산 대책의 지수 견인 효과가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함.
 - 10월 CBSI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수는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초·중반에 머물러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 모두 하락

- 기업의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의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의 효과로, 전월 대비 16.0p 하락한 92.3을 기록해 10월의 CBSI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78.8을 기록했지만, 대형기업 및 중소기업 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음.
 - 중소기업 지수 또한 전월 대비 9.6p 하락한 50.0를 나타냄으로써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제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이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 물량까지 부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4.3	68.9	67.9	76.5	77.2	74.5	77.7	80.2	83.9	74.9	81.8	83.8	
규모 별	대형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92.3	108.3	92.3	100.0	100.0
	중견	67.9	66.7	60.7	75.9	74.1	73.3	75.8	83.3	80.0	78.8	73.3	87.9
	중소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2.5	59.6	50.0	70.0	6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1월 전망치, 10월 실적치 대비 8.9p 높은 83.8 기록

-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8.9p 높은 83.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11월에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10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0월의 실적치가 저조한 데 따른 기저 효과와 함께 통상 연말로 접어들면서 발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11월에는 체감 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2015년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0조원 전망¹⁾

-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

■ 공공 부문 수주 2.0% 증가, 민간 부문 수주 6.6% 증가 전망

- 2015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110조원을 기록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단, 수주액이 건설 경기 침체 직전인 2007년의 127.9조원에 훨씬 미치지 못해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주의 회복과 일부 회복된 거시 경제 및 대기업 설비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가 증가해 전년 대비 6.6% 증가한 69.7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공공 부문은 토목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 수주가 부진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40.3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국내 건설 수주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 수주액(조원, 당해 연도 가격)										
공공	15.2	18.8	34.1	15.0	21.1	36.2	21.7	17.8	39.5	40.3
민간	39.6	27.9	67.4	24.1	31.0	55.1	28.0	37.4	65.4	69.7
토목	21.4	14.3	35.7	14.1	15.8	29.9	18.0	14.5	32.6	34.0
건축	33.4	32.4	65.8	25.0	36.4	61.4	31.6	40.7	72.3	76.0
주거	17.3	17.0	34.3	10.8	18.5	29.3	16.2	22.6	38.8	41.8
비주거	16.1	15.5	31.5	14.2	17.9	32.1	15.4	18.1	33.5	34.2
계	54.8	46.7	101.5	39.2	52.2	91.3	49.7	55.2	104.9	110.0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공공	5.2	-14.9	-7.0	-1.4	12.3	6.1	44.4	-15.8	9.2	2.0
민간	11.6	-27.8	-9.0	-39.0	11.3	-18.2	15.9	20.7	18.6	6.6
토목	21.2	-32.6	-8.1	-34.0	10.5	-16.2	27.4	-7.7	8.9	4.4
건축	3.4	-18.1	-8.4	-25.1	12.2	-6.7	26.5	11.8	17.8	5.1
주거	15.5	-28.4	-11.4	-37.6	8.9	-14.6	49.6	22.4	32.5	7.8
비주거	-7.1	-2.7	-5.0	-11.6	15.9	1.9	8.9	0.9	4.4	2.0
계	9.7	-23.1	-8.3	-28.6	11.7	-10.0	26.8	5.9	14.9	4.9

주 :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1월 4일에 개최한 '2015년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건설 경기 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 건설 투자, 전년 대비 3.4% 증가해 회복세 확장 전망

- 건설 투자는 2015년에 전년 대비 3.4% 증가해 2014년에 비해 회복세가 확장될 전망이다.
- 2014년 상반기부터 건설 수주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5년 건설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015년 건설 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 투자	86.69	99.42	186.11	92.21	106.39	198.61	93.98	108.55	202.53	209.47
증감률	-3.2	-4.6	-3.9	6.4	7.0	6.7	1.9	2.0	2.0	3.4

주 :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건설 투자액은 2010년 연쇄 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전망의 시사점

- 2015년 건설 경기의 회복세 전망에는 일부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 향후 건설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우선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입법안들의 입법화 여부가 향후 건설 경기의 회복세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유럽의 성장 모멘텀 저하,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이 매우 많은데, 이는 민간 부문의 건설 경기 회복에 있어 변수로 작용
 - 따라서, 건설 경기가 견조한 회복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의 입법화, 9.1 대책 후속 조치들의 실제 이행, 민간 투자 관련 개선안의 입법화 및 이행,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업계 측면에서는 건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는데다 과거와 달리 회복 국면이 짧고, 회복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함.
 - 이번 건설 경기 회복 국면 중에 2020년을 전후로 예상되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 및 경영 체질의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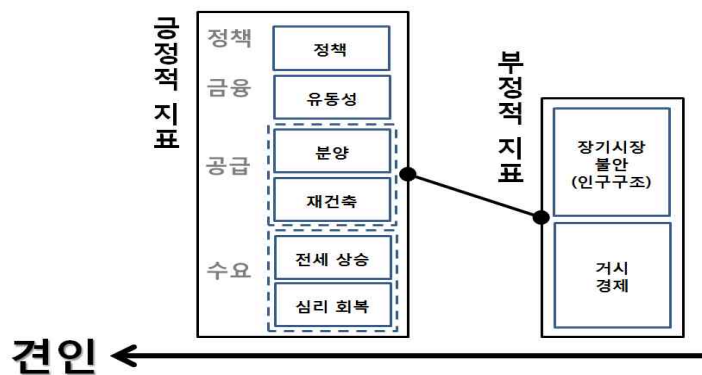
2015년 주택 매매 가격, 수도권 2% · 지방 1% 상승 전망¹⁾

- 정책 및 심리 등 일부 지표 긍정적이나, 거시 경제 불안 및 장기적 불확실성 상존 -

■ 2015년 주택 시장 전망의 주요 변수

- 신규 분양 시장 등에서 긍정적 지표가 부각되고 있으나, 부정적 지표도 여전히 존재해 긍정적 지표의 주택 시장 견인 여부와 견인력이 2015년 주택 시장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2015년 주택 시장의 경기 측면의 변동 요인>



- 긍정_정책 : 제2기 내각의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주택 시장의 반전을 이끌었고, 2015년에도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긍정_수요 :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에서 탈피한 것으로 해석됨. 2014년에는 실수요와 교체 수요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요가 확대됨. 2015년은 장기적 투자 수요의 진입 여부가 변수임.
- 긍정_공급 : 신규 분양 시장 및 재건축 시장은 재고 주택 시장보다 호황세이며,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가격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이 동시에 나타남.
- 긍정_금융 : 초저금리 상황에서 단기 유동 자금은 757조원에 이르고, 경쟁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낮아져 유동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부정_거시 경제 : 2014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경기는 불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탈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함.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1월 4일에 개최한 ‘2015년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부동산 경기 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충격과가 존재할 경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부정_장기적 불확실성 :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가구 증가 등 주택 시장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

■ 2015년 매매 가격 수도권 2%, 지방 1% 상승 전망

- 2015년 수도권 주택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은 2014년보다 소폭 확대된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 교체 수요 진입, 저금리에 따른 경쟁 투자 상품 대비 우위 등으로 투자 수요의 유입 등이 예상됨.
 -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 호조 등 주택 시장 내부의 긍정적 지표와 유동 자금의 주택 시장 진입 등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저성장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과 같은 불안 요인도 여전히 존재함.
 - 2015년은 단기 긍정 지표가 장기 부정 지표를 끌고 가는 양상으로, 장기 지표의 개선이 동반될 때 장기적이고 견조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2015년 지방 주택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상승폭은 2014년에 비해 둔화된 1.0%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분양 시장과 개별 호재가 존재하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나, 지역적 편차가 커 전역적 지수와 체감 사이의 격차가 존재함.
 - 공급 증가 및 수요 여력의 소진 등으로 상승세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2015년 주택 가격 전망>

(단위 : 전기 말 대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e)	연간e)		
매매	수도권	-3.0	-1.4	0.3	0.1	0.4	0.3	1.1	2.0
	지방	3.1	2.4	0.8	0.6	0.6	0.5	2.6	1.0
전세(전국)		3.5	5.7	1.4	0.7	0.7	0.6	3.5	3.5

주 :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 2015년은 단기적 긍정 지표 견인 국면으로 장기적 지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함에 따라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의 지속과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함.
 -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입법화와 주택 보유에 대한 지원 확대, 부동산 금융 상품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2015년 경영 전략 수립의 쟁점과 대응¹⁾

- 수익성 회복을 통한 재무 구조의 개선과 성장 잠재 역량 확충의 시기돼야 -

■ 2015년 건설 경영 전략 수립의 쟁점 요소

- 경기 : 디플레이션 우려 속 회복 전망
 - 한국은행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2015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금년(3.6%)보다 높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시기별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예상
 - 건설 투자 역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증가와 민간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금년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건설 투자 증가율은 3% 내외로 전망
- SOC 예산 : 금액 증가 및 질적 변화의 가시화
 - 금년도 건설 시장의 부진을 우려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으로 금년보다 3.0% 증가한 24조 4,000억원을 제시. 교통 SOC를 제외한 수자원, 물류 등 기타 SOC 예산은 금년보다 4.4% 감소할 전망이나, 도로·철도 항만 등 교통 SOC 예산은 금년보다 6.1%나 증액
 - 향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과 더불어 SOC 시설물에 대한 사회의 수요 변화에 따라 2015년부터 유지·보수 및 생활형 SOC에 대한 수요 증가가 본격화될 전망
- 정책·제도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본격화
 -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금년도에 첫 시범 사업인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개찰(8.20)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 검증 TF' 회의를 통해 낙찰률 상향 방안 수용
 -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9월 24일,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이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정 방식을 개선
- 부동산 : 9.1 대책 및 저금리 정책 등 부동산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대
 - 2015년 부동산 시장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탈 전망. 지난 10월 23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1) 본고는 지난 10월 28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한 「2015년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일부 요약하였음.

인하 정책까지 가세, 주택 시장의 부양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년도 주택/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함.

- 사회적 요구 : 윤리 경영 및 불공정 거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사건 이후, 건설업계에는 윤리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됨. 향후 건설업계에도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
 -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원도급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책 강화
- 세계 건설 시장 : 2015년에는 10.6조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 예상(2005년 불변 가격 기준)
 - 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15년 해외건설 시장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해 2014년의 4.6%보다 높은 5.2%(2005년 불변 가격 기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다만, 해외건설 시장의 상품 및 발주 트렌드는 기존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건설 경기 긍정적, 2015년 이후를 위한 역량 총전의 시기로 삼아야

- 2015년 건설 경영 전략 수립의 키워드는 ① 수익성 회복과 재무 구조의 개선, ② 성장 잠재 역량의 확충, ③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양극화에 대한 경계, ④ 윤리 경영/불공정 거래 및 안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

<2015년 경영 전략의 키워드>

수익성 회복/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제도의 본격적 개선 •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의 영향에 따른 분양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개선 • 해외건설 수주의 선별과 공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성장 잠재역량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이후 SOC예산 지속적 감축 •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부동산 수요 하락 • 중동 건설시장 발주 감소 → 각 부분별 새로운 needs 및 신 해외시장 기회 catch up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양극화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요에의 부응 정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수주 및 자금조달의 양극화 확대 가능성 높음 • 수주~재구조개선~자금조달~신사업 수주까지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 구축 필요
윤리경영/불공정거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 부상, system화를 통한 대응 필요 • 하도급 불공정거래, 시공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에의 대응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0. 3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 ‘민생 경제 분과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토론자로 참여
11. 3	서울경제TV	• ‘TV 대담, 기센 부동산’ 프로그램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11. 4	서울시	• 주택정책개발센터 주최, ‘전·월세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토론자로 참여
	외교통상부	• 한국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대사관 파견 민간 전문가 직무심의위원회 참여
11. 5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제도 개선 포럼 3분과 제5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취약 계층 고용보험 적용 실태 및 개선 과제
11. 6	동아일보/ 채널A	• ‘2014 동아 부동산 정책 포럼’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토론자로 참여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주최, ‘거시 경제 T/F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11. 7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과 주최, ‘「민간투자법」 시행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지명 토론자로 참여

■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 금융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11. 13(목)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주최 : 대한건설협회
- 주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경제신문사
- 문의 : Tel. 02-3485-8294

■ 「제20차 ASIACONSTRUCT Conference」 참여

- 일정 및 장소 : 2014. 11. 13(목)~14(금), 홍콩
-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산업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이 ‘한국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ASIA CONSTRUCT Conference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4개 국가의 건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임. 연구원은 제1회 회의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근절책이 필요한 입찰 담합

우연히 중학생의 참고서를 보니 사회 과목에 “어떻게 모든 회사의 아이스크림 값이 한꺼번에 오르죠?”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이를 통해 담합이라는 기업의 부당 경제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를 학생들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담합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담합은 기업의 경제 활동 설명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어 왔으며, 그만큼 기업의 담합 행위가 경제 활동의 한 현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건설기업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국책 대형 건설 사업들에서의 담합 사례가 월 1~2회 꼴로 적발되고 있다. 가뜰이나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담합이 건설업계에 만연된 관행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건설산업 내 담합, 특히 입찰 담합은 지난 20~3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내 입찰 담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건설기업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익의 추구가 용인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입찰 담합의 근절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강력한 자정 노력도 부족했다.

최근 건설 경기의 위축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잇따른 과징금 부과로 산업 전체의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중복적이라든지 과중하다든지 하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정부는 지난 1월 턴키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계속 등장해온 만큼 보다 미래 지향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입찰 담합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주체인 정부나 건설기업 모두 향후 건설산업 내에서 입찰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 입찰 담합의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 건설기업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제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설명을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를 기대한다. <서울경제, 2014. 10. 13>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